

인간성 회복과 윤리적 삶을 위한 미디어 연구:

실버스톤의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가 제시하는 미디어 연구의 방향과 책무*

김세은**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는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이 글은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미디어와 미디어 연구에 대한 로저 실버스톤의 사유와 논의를 짚어봄으로써 우리가 미디어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미디어를 연구하면서도 정작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우리의 둔감함과 안이함에 대한 반성이 그 출발점이다. 실버스톤에 따르면,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 연구 역시 더 이상 주변적인 학문 영역이 아닌 중심 학문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경험은 미디어의 매개 없이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타자에 대한 이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실버스톤이 제시하는 미디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 학문으로서의 미디어 연구는 무엇보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 이 글은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에 대한 해제를 목적으로 하여, 실버스톤의 저작 외에 2006년 실버스톤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그의 학문 세계를 조명했던 몇 편의 글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를 번역하는 내내 기한의 압박과 번역의 고통에 눌려 스승과의 지적 교류와 성찰이 뒷전이었던 내게 특권적 기회를 제공해 준 『커뮤니케이션 이론』 편집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 news@kangwon.ac.kr

필수라고 실버스톤은 주장한다. 미디어 연구에 철학과 역사 등 인문학적 접목이 필요한 이유, 또 인류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버스톤이 제안하는 ‘미디어폴리스’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타자에 대해 배우며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매개된 공간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폴리스를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기획이다.

키워드: 미디어, 미디어 연구, 경험, 매개, 테크놀로지, 가정, 일상, 신뢰, 타자, 거리, 세계화, 미디어폴리스, 미디어 리터러시

1. 뜨끔한 질문: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많은 이가 미디어를 연구하(고자 하)고 있을 것이며 그것을 직업으로 삼은 이들도 적지 않을 터이다. 그러나 정작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본 이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우리는 진정 무엇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품지 않고 미디어 연구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연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이미 길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더욱 심각하게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영국의 미디어사회학자 로저 실버스톤(Roger Silverstone)¹⁾이 『왜 미

1) 로저 실버스톤(1945~2006)은 브루넬대학교(Brunel University), 서섹스대학교(University of Sussex)를 거쳐 1998년부터 LSE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저널 *New Media and Society*의 창간 멤버로서 편집인을 겸했으며 유럽커뮤니케이션위원회(European Communication Council) 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실버스톤은 영국 미디어 연구의 초석을 다진 ‘뛰어난’ 학자 중의 하나로 꼽힌다(Clark, 2007, p. 537).

디어를 연구하는가?(Why Study the Media?)』(1999/2009)²⁾를 통해 던진 이 질문— 어쩌면 너무도 당연해서 대부분이 묵과하고 넘어갔던—이 죽비처럼 딱딱게, 비수처럼 날카롭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무신경하고 안이하게, 즉 비성찰적으로 임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기’보다 어제처럼 ‘살아지는’ 삶이라고나 할까. 그렇기에 이 질문을 맞닥뜨린 순간, 저만치 가슴 깊은 곳이 뜨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라.

그렇다면 실버스톤은 과연 미디어 연구의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거칠게 간추리자면,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에서 펼치는 그의 핵심 논지는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구별(distinction)과 판단(judgement)의 과정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와 미디어 연구가 인간과 사회의 경험에서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20쪽). 그에 따르면, 우리는 온통 미디어가 가득한 세상에서 미디어의 매개 속에 살고 있으며 미디어 없이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은 우리의 경험마저 미디어 없이는 의미를 가질 수 없게 하며, 타자에 대한 이해는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기에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 연구 역시 더 이상 주변적인 학문 영역이 아닌 중심 학문(되어야 한다)라

2) 세계화와 정보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새로운 어젠다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독일, 중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9개국에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이미 실버스톤은 1994년 출간된 *Television and Everyday Life*를 통해 유럽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디어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Bassett, 2007, p. 43; Stevenson, 2007, p. 529). 이 책에서 실버스톤은 텔레비전이 가정을 점유하는 다양한 방식, 즉 텔레비전의 이용과 소비가 일상생활의 반복적이고 평범한 의례(rituals)로 연결되는 방식을 학제 간 접근을 통해 이해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당시 미디어 연구의 전통적, 주류적 접근이었던 정치경제학과 텍스트 형식의 분석을 넘어서는 해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tevenson, 2007, pp. 529~530).

는 것이다. 중심 학문으로서의 미디어 연구는 무엇보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실버스톤은 주장한다. 미디어 연구에 철학과 역사 등 인문학적 접목이 필요한 이유, 또 인류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미디어와 미디어 연구에 대한 실버스톤의 사유와 논의를 짚어봄으로써 우리가 왜 미디어를 연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미디어를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기로 한다.

2. 경험과 매개

1) 환경으로서의 미디어

실버스톤의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는 미디어 연구 안팎에 대해 현대 경험에서의 미디어의 중심성과 다차원성을 천명한 열정적 선언인 동시에 미디어 연구가 하찮다거나 쉽다거나 별의의가 없다거나 하다고 보는 그 모든 인식에 대한 단호한 거부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미디어를 회피할 수는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미디어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면면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두 가지 중요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미디어를 우리 경험의 핵심에 위치시키려는 것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의 중심에 위치시키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진 관심의 진지함과 적절함을 견지해 나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지적인 논제를 미디어 연구가

던지도록 하는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p. viii)

실버스톤에게 미디어는 환경(environment)이다.³⁾ 오늘날 우리의 인간성(humanity)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데 있어 미디어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속에 존재하고 행위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도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이다(Silverstone, 2004, p. 441). 실버스톤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용어를 빌어 ‘경험의 일반적 구성(general texture)’의 한 부분으로 미디어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미디어는 이제 경험의 일반적 구성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당연시되는 범위에서뿐 아니라 그 밖에서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능력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1999/2009, 3~4쪽)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단발적 혹은 지속적 재현을 통해 일상의 현실을 걸러내고 틀 지우며, 일상생활의 행위를 판단하고 우리의 상식을 형성·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준거를 제공한다. 무엇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가는 우리가 미디어를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Silverstone, 1999/2009, 9쪽)

미디어가 구별 짓기와 판단하기라는 이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미디어가 경험을 모양 짓는 범주화와 범주화에 색채를 부여하는 경험 사이의 변증적 관계를 정확하게 매개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매개의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미디어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20쪽)

3)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의 논리와 메커니즘에 의해 세계가 구성되고 작동되는 ‘미디어화(mediatization)’로 규정되기도 한다. ‘미디어화’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쿨드리(Couldry, 2008)를 참조할 것.

그러므로 실버스톤이 미디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언어와 말, 말하는 것과 말해진 것, 인식된 것과 인식되지 못한 것,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기술적·정치적으로 개입하는지 등이다.”(1999/2009, 8~9쪽). 오늘날 뉴미디어 시대에는 매개, 즉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간의 매개 과정이 비가시적으로 되어버렸으며, 이를 제대로 보기 위해 텍스트보다는 맥락(contex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우리는 모두가 매개자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는 그 자체로서 떠돌아다닌다(nomadic). 의미는 또한 강력하기도 하다. 경계를 (...) 가로지른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전환이기도 하다. 그리고 각각의 전환은 그 자체가 의미를 주장하고, 또 의미의 타당성과 의미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개를 과정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관심은 ‘왜 미디어를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재현과 경험의 경계면을 가로지르는 의미의 이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ilverstone, 1999/2009, 28~29쪽)

“매개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로, 하나의 담론에서 다른 담론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의미가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의미의 끊임없는 변형(transformation)을 포함하는데” 바로 이러한 매개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권력과 책임성이 그 효과를 가지게 된다(Silverstone,

4) 따라서 뉴미디어 수용자 연구 역시 과거 텍스트 기반의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기호학, 레토릭 분석 등에서 벗어나 민속지학적 연구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실버스톤은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의 민속지학적 연구경향에 대해 “미디어 연구가 실험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Silverstone, 1996, Lacey, 2007, p. 16에서 재인용).

1999/2009, 21쪽). 권력과 책임의 문제는 이후 실버스톤이 후기 저작에서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것이다.

미디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인식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위험한 일이다. 미디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화(異化, defamiliarization)의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이화의 과정이란, 당연히 여겨지는 것에 도전하는 것, 의미의 표면 너머를 파헤치는 것, 명백한 것과 문자적인 것, 단일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화의 과정에서 단순한 것은 복잡해지고 명백한 것은 불투명해진다. 마치 그림자 위로 빛이 비춰지면 바라보는 각도에 관계없이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Silverstone, 1999/2009, 22쪽)

2) 경험의 차원: 놀이, 연기, 소비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실버스톤은 이를 놀이(play), 연기(performance), 소비(consume)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포착해냈다. 미디어는 놀이와 연기, 소비의 장소이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와 인간의 상호작용에 깊숙이 관여한다. 특히 놀이는 미디어 경험에서 핵심을 차지하는데,

미디어를 놀이의 장소로 보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미디어 텍스트와 미디어 텍스트가 야기한 반응 모두에서 미디어는 놀이의 장소가 된다. (...) 미디어는 수용자를 일상생활과 구별되는 다른 공간과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매개 과정에는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매번 넘어야 하는 문턱이 존재한다. 그 문턱은 새로운 자유인 동시에 새로운 규칙이다.

(Silverstone, 1999/2009, 91~92쪽)

실버스톤이 보기에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은 미디어의 놀이에 자꾸만 의존하게 된다. 놀이를 통해 미디어가 제공하는 가정법적 경험과 세계가 현실과 연결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알면서 또 모르면서 그 경계와 문턱을 넘나드는 것이다. 여기서 실버스톤이 주목하는 것은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우리의 경험과 그에 대한 미디어의 개입과 관여인데, 그는 이것을 ‘연기’라고 규정한다. 이제는 미디어에 등장하는 연기자만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연기를 한다.

1997년 8월,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Princess Diana)의 죽음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실버스톤이 미디어와 ‘보통 사람들’의 연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한 예가 된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공적 영역에 한쪽 발을 들여놓는다. 사람들이 다이애나의 장례 행렬을 따라 런던 거리를 걸으면서 벌였던 ‘연기’는 “미디어와 함께, 미디어 없이, 미디어를 따라, 미디어와 다르게 다이애나를 연기”한 것이었고, 이는 “공적 공간을 점유하고 사적 공간을 채우며 경계를 흐리고 거울을 비추”는 것이며, “개인적 경험을 집합적 경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Silverstone, 1999/2009, 112쪽).

중요한 것은, 이런 연기를 통해 미디어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그러나 “매개된 경험과 매개되지 않은 경험 사이의 경계는 설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미디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것과 그 영향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112쪽). 우리의 경험 안에 미디어가 깊이 자리하면 할수록 미디어를 따르는 우리의 연기는 사회적 중요성을 잃어가고, 우리는 관계를 상실한 채 홀로 있게 된다. 실버스톤은 미디어 연구가 바로 이 지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ilverstone, 1999/2009, 116쪽).

놀이와 연기에 이어,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일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소비 개념이다. 우리는 미디어를 소비할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하며, 무엇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배우고 소

비하기를 설득 당한다. 이를 실버스톤은 “미디어가 우리를 소비한다”고 표현한다(Silverstone, 1999/2009, 119쪽). 뿐만 아니라,

미디어는 시간과 소비 사이를 매개한다. 미디어는 기본 틀과 함께 세부적인 사항을 제공한다. 미디어는 그 자체가 시간 안에서 소비된다. 유행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진다. 새로움이 선언되고 또 부정된다. 거래가 행해지고 또 감소한다. 광고가 주목받고 또 무시된다. 주기가 유지되고 또 거부된다. 소비. 편리함. 사치. 절약. 정체성. 드러내기. 판타지. 회구. 욕망. 모든 것이 미디어의 화면 위에, 페이지 위에, 소리 위에 반영되고 또 굴절된다. 우리 시대의 문화, 그것이 미디어다. (Silverstone, 1999/2009, 128쪽)

3. 테크놀로지, 가정, 일상

1) 테크놀로지

미디어를 연구하면서 실버스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테크놀로지와 가정(home), 그리고 일상(everyday life)이었다. 테크놀로지와 사회, 문화의 관계에 대한 실버스톤의 이해는 매클루언(McLuhan)과 옹(W. Ong)의 영향을 받아,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holistic)이다. 실버스톤은 문화에 있어 ‘마술과 신비의 원천이며 그 장소’로서 테크놀로지를 사유한다(1999/2009, 34쪽).⁵⁾

실버스톤은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은 ‘삶 속에 체화된 경험(lived experience)’의 발견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 권력의 맥락 안에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

5) 이러한 실버스톤의 사유방식을 바세트(Bassett)는 ‘낭만적’이라고 일컫는다(Bassett, 2007, p. 43).

하면서 테크놀로지의 물질적 변환과 결정의 문제에 천착한다.

미디어와의 관련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테크놀로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변화의 속도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속도 그 자체는 예측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모순적인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행위 능력을 강화하기도, 제한하기도 한다. 디지털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점점 더 융합(convergence)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미디어는 사회적·문화적 시간과 공간을 변형시키고 있다.

(Silverstone, 1999/2009, 30~31쪽)

그가 강조하는 것은 테크놀로지가 실상 역사적,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관계, 다시 말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개입을 거쳐 나타나는 것이며, 고안과 개발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테크놀로지를 고안하고 개발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기관과 개인의 활동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기관과 개인의 능력은 사회와 역사에 의해 강화되거나 제한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ilverstone, 1999/2009, 32쪽).

이러한 실버스톤의 논의가 의도하는 바는 결국 또 다른 차원에서 테크놀로지의 확장이다. 나아가 테크놀로지는 경제로, 정치로, 또 문화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테크놀로지를 물질적일 뿐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또 기능적일 뿐 아니라 심미적인 것으로, 그리고 대상물과 실천(practices)으로 보는 것”을 뜻하며, “‘무엇’뿐 아니라 ‘어떻게, 왜’를 포괄해서 기계와 기계의 사용을 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37쪽).

실버스톤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가정화(domestication)’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핵심 주역이었다. ‘새로운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

의 변환' 즉 '길들여지지 않은(untamed)'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되며 깊이 새겨지는(embedded) 과정을 그는 '가정화'라고 일컬었다. 그 과정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일차적 장소이며, 가정을 통해 미디어의 기능적, 문화적 차원이 작동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ilverstone, 1994, p. 176; Lacey, 2007, p. 62에서 재인용). 기술 결정론에 대한 대안적 분석들을 지향했던 실버스톤은 '가정화' 개념을 가지고야 비로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사회적으로 적용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소모품화(commodification), 대상화(objectification), 편입(incorporation), 전환(conversion) 등의 과정을 면밀히 고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Lacey, 2007, p. 63).

2) 가정과 일상

(1) 가정

'가정(home)'은 실버스톤의 미디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위치를 차지한다. 실버스톤은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이 가정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개인 간 조직체 속에 어떻게 깊이 새겨지는지 그 복합적 방식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는 가정을 매개된 공간(mediated space)으로, 미디어를 가정화된 공간(domesticated space)으로 이해했다(Lacey, 2007, p. 61). 실버스톤은 가정이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특히 시트콤과 연속극에서 가정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하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한마디로, 그가 가졌던 관심은 방송이라는 발명품이 근/현대사회에서 가정을 '재발견'해내는 방식에 놓여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뉴미디어 등은 공과 사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가정적인 것의 한계를 침투하고 변형하며, 가정의 영역과 영향력을 확장한다(Silverstone, 1999/2009, 141쪽).

실버스톤은 가정(home), 공동체(community), 세계(globe)라는 세 개의 서로 얽혀 있는 행위와 매개의 차원 또는 수준 위에서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는데,⁶⁾ 가정은 공과 사, 안과 밖, 그 경계와 문턱, 매개와 연결되는 중요한 장소다.

가정. 기억과 인식을 담고 있는 곳. (...) 가정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일상생활의 물질적 환경과 그 경험이 기억되고 회상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가정의 이야기는 사회라는 몸속의 동맥과 같이 흐른다.

(Silverstone, 1999/2009, 139쪽)

그러나 이제 가정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미디어 때문이다. 실버스톤은 현대 사회의 미디어가 가정을 보호해 주는 동시에 침해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여기에서 투쟁이 벌어진다고 본다. 이 투쟁은 “가족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며 가족의 순수함을 보호하고 공적, 사회적 도덕성이 만나는 기관으로서의 중심성을 보호하려는 투쟁이기도 하다.”(Silverstone, 1999/2009, 141쪽). 실버스톤은 가정이라는 영역을 ‘개인과 사물, 그리고 공적 생활이 사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 이해했는데(1995, p. 12), 이러한 통찰은 인류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 구성원들은 사적 세계 참여자로서의 가치에서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공적 세계의 일용품과 물건에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실버스톤은 수용자가 능동적이나 수동적이나 하는 이분법을 넘어서, 수용자

6) 이들은 각기 사회적 공간과 미디어 공간에서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객관적 특성을 생 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이나 이웃 또는 세계적 체계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해 준다. (...) 가정, 공동체, 세계. 이들은 서로 혼적 없이 매끈하게 연결 되는 동시에 모순적인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박탈하기도 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해 준다(1999/2009, 130~131쪽).

를 사회적인 의미의 행위자(agency)로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수용자는 윤리적인 관여자로서의 행위자가 된다(Silverstone, 1994, pp. 169~170; Lacey, 2007, p. 62에서 재인용).

실버스톤이 보기에 가정은 일에서 벗어난 휴식의 공간일 뿐 아니라 긴장의 공간이기도 했다. 가정은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shell) 이면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벽(walls)이지만, 그렇다고 늘 안정감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가정이라는 친밀한 공간은 동시에 세속적인 거래와 구성적 부분이기도 하며 물질적이면서 가상적인 차원을 갖기에, 변증법적이며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하다. 가정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드 세르토(de Certeau)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극단적 소외와 긴장, 그리고 애정이 공존하는 변증법적 개념화를 통해 가정에 대한 이해를 더 넓은 지평으로 이끄는 것이다(Bassett, 2007, p. 44).

가정은 안전(safety)과 보호(security)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탐구되는데, 우리가 가정을 연상할 때 떠올리는 안전감과 보호감에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실버스톤은 이해한다. 나아가 가정은 커뮤니케이션 윤리의 발현, 실행 그리고 재협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실버스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Lacey, 2007, p. 62). 이것이 바로 그가 미디어를 연구하면서 가정에 천착했던 근본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원한 회귀(回歸)의 신화를 필요로 한다. 그런 신화 중 핵심적인 원천이 바로 미디어인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143~144쪽). 가정은 현상학적 범주로서 정체성 형성의 장소이며 우리 자신의 투사(projection)로서 기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Silverstone, 1999/2009, 140쪽). 따라서 실버스톤에게 가정은 도덕적, 윤리적 미디어 연구를 향한 중요한 지점으로 기능한다.

그런 의미에서 레이시(2007)는 실버스톤의 ‘가정’ 개념이 사회학적 ‘가족(family)’이나 경제적·문화적 ‘가구(household)’와 같으면서도 다르

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정을 핵심에 둔 실버스톤의 미디어 연구는 ‘가구’를 도덕적 경제제도 혹은 경제기구(moral economy)로 파악하는데, 분석적 범주로서 가구는 경제적인 단위인 동시에 문화적 단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영역 및 문화적 영역에서 가구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만나는 장소를 재현하며, 특히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거래되는 장소를 재현한다. 여기서 가정 경제가 개인적이며 사적인 문화 내에서 만들어지고 협상된 가치와 우선권에 의해 작동한다는 점에 도덕적 차원이 개입하게 된다. 공적인 것 즉 형식 경제에서 작동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와 우선권이 있다(Lacey, 2007, p. 62).

(2) 일상

미디어가 가장 중요하게 기능하는 곳은 바로 일상세계다. 일상의 공간은 정치적 공간이다. 편안한 곳인 동시에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실버스톤이 경험에 대한 존재론적 주장과 경험의 기술적 변환을 정치적 구조와 구조화, 매개의 문제에 연결시키는 방식이다(Bassett, 2007, p. 45).⁷⁾ 도시 주변으로 이주한 중산층의 거실, 그 안에서의 일상생활은 실버스톤의 사유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근교에서의 일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정돈된 삶이다. 사회적 거리나 재산, 좋은 취향 등이 매일의 혹은 매주의 생활주기를 매개한다. 텔레비전 문화는 그 자체가 도시 근교적이다(Silverstone, 1995, p. 16; Lacey, 2007, p. 65에서 재인용). 근교성(suburbia) 개념은 가정적인 것, 커뮤니케이션과 일상의 경험에 대한 실버스톤의 천착 뿐 아니라 변증법과 내러티브와 신화와 도덕성에 대한 그의 학문 영역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Lacey, 2007, p. 66).

7) 실버스톤의 저작에서 일상은 항상 ‘진행 중’인데, 가정성이 드러나는 형태 혹은 형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이다(Bassett, 2007, p. 45).

우리는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가정이 형성되고 키워진다. 리빙스톤(Livingstone, 2007)은 실버스톤의 거실을 두 개의 결정적 순간 사이에서 문화적, 역사적으로 위치 지워지는 곳으로 본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분리되었던 시절- 특히 영국의 중하층 가정에서-에는 미디어가 덜 지배적이며 책과 사전과 소설이 멋지게 진열된 거실(front room), 신문과 잡지가 잘 보관되어 있는 또 다른 방(back room)에 의해 계급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지점은 개인화된 미디어 경험으로 그려지는 오늘날의 미디어 정경이다. 거실이 침실보다 훨씬 중요해지며 각종 개인 미디어로 인해 사적 경험이 공적 공간에서조차 사사화(私事化)되어 버린다(pp. 16~17).

실버스톤은 거기에 놓인 텔레비전과 그 소비에 주목한다. 실버스톤이 보기에 미디어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 짓는 경계 또는 문턱을 움직이며, 과거의 역사성과 문화적 텍스트를 통해 다른 시대와 장소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계급을 구분 짓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 거실에 놓여 있는 물건- 텔레비전, 오디오, 휴대폰, 책, 소파, 램프 등 소비의 대상물-은 모두가 젠더와 계급을 내재하고 있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 일상적인 듯 보이지만, 실은 다른 세계로 이어주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Livingstone, 2007, p. 17).

실버스톤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우리의 가정과 일상을 구성하는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소한 일상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일상의 가정 대소사 속에 녹아 있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집마다, 또 시대적으로, 거실에 놓여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함축하는지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며, 이는 결국 미디어의 권력, 세계 자본주의의 권력과 잇닿아 있는 것으로 실버스톤은 파악한다(1999/2009, 142쪽).

(3) 미디어의 물질성과 상징성

그렇기에 미디어는 가정과 일상에서 소비의 대상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여타 소비재와는 달리 독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즉 공적 영역과 가정의 사적 세계 사이를 매개하며, 전통적으로 국가적이었지만 점차 세계화되어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실버스톤은 1994년 *Television and Everyday Life*에서 제안한 ‘이중 접합(double articulation)’ 개념을 통해 미디어의 물질성(the material)과 상징성(the symbolic)을 대비시키고⁸⁾ 미디어 분석에서 이 둘을 통합할 것을 주장한다. 리빙스톤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디어의 물질성이란 특정 시공간 안에 위치한 대상물로서의 미디어의 특성을 지칭하며 상징성이란 특정 사회문화적 담론의 흐름 속에 위치한 미디어의 텍스트적 혹은 상징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곧 공중(public) 역시 ‘소비자인 동시에 시청자(consumer-viewer)’ 혹은 ‘소비자인 동시에 사용자(consumer-user)’로 이중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디어 연구도 마찬가지로 소비, 경제학 등의 이론과 재현, 해석, 영향 등의 이론이 연결되어야 한다. (Livingstone, 2007, p. 18)

경제와 문화에서 실버스톤이 제안한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이중 접합’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가구 내에서 기능하는 분명한 방식을 포착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며, 테크놀로지의 모든 측면을 일상 내에서의 물질적 대상물과 상징적 대상물로 정교하게 위치 지우는 것이다(Lacey, 2007, p. 63).

8) 하트만(Hartmann, 2006)은 이를 삼중 접합(triple articulation)으로 발전시키는데, 메시지로서의 미디어, 대상물로서의 미디어, 맥락으로서의 미디어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미디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Livingstone, 2007, p. 22).

3) 세계화와 공동체

이와 유사하게 실버스톤은 세계화를 정신적 세계인 동시에 물질적 실재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화는 “변화하는 경제적, 정치적 질서의 산물로서 기술과 자본이 새로운 다면적 제국주의로 결합한 것”(Silverstone, 1999/2009, 161쪽)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자유주의로 치장한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데도 여전히 자본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철회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제국주의적 속성, 즉 불균형과 불평등,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하는 재생산, 확장 능력을 들추어 보기를 제안한다. 여기서 실버스톤의 관심은 제국주의로서의 세계화에 그치지 않고, “매개된 문화적 원동력(cultural force)으로서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화가 경험에 대해 갖는 관계”(162쪽)에 두어진다.

세계화가 제공하고 조건 짓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모색하고 주장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체로 들어서게 된다. 실버스톤은 미디어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표현(expression), 굴절(refraction), 비평(critique)이라는 세 가지로 제시한다. 실버스톤은 이 세 차원이 역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특정하다고 본다. 즉 역사와 테크놀로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150쪽). 여기서 경계와 의례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경계는 (공동체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포함하며 구별한다. 경계 내에서 개인은 공동체를 재현하고 규정하는 데에 강력한 역할을 하는 상징을 찾는다. 의례는 상징적 행위를 수반한다. 우리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행위에 참여한다. 의례는 차이 속에서 우리를 묶어주고, 공통적이고 강력한 일련의 의미와 관념의 우산 아래로 함께 들어서게 해 준다. 이는 우리의 독특함을 평

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우리 자신을 이웃-거리를 두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배제하기를 원하는-과 구별하도록 해 준다. 의례는 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150쪽)

공동체를 위한 의례와 상징적 행위는 점점 더 미디어로 수렴된다. 세계화 시대 미디어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따라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버스톤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하의 미디어가 공동체에 가져올 파괴력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161쪽),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공동체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어디에서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가? 공동체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행위와 개인적·사회적 책무(commitment)에 의존하고 있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방어되는가?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가? 공동체라는 느낌, 진정 공동체의 실체는 미디어-의미와 커뮤니케이션, 참여, 동원의 대리자로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147쪽).

이런 질문들은 실버스톤 스스로가 말했듯이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일련의 도덕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169쪽). 뒤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지만, 그가 의도하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평가, 그 설명 체계를 거꾸로 뒤집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미디어가 추동하는 세계화는 결코 세계 정치, 세계 시민권, 세계 사회(global society)를 위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디어와 결합한 세계화, 그 환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은 겉보기에는 공유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생각, 신념의 통행을 위한 세계 공간을 제공한다. 마치 보고 듣는 것이 이해하는 것인 양. 마치 정보가 지식인 양. 마치 접근이 참여인 양. 마치 참여가 효율성인 양. 마치 이익 공동체가 관심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양. 마치

세계적 수다 떨기- 동시적, 비동시적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인 양.

(Silverstone, 1999/2009, 169쪽)

4. 의미의 형성

실버스톤은 일상생활의 질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고 위치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미디어의 중심성과 잇닿아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의 기획은 아 이러니와 모순을 반드시 수반한다고 보고 있다(1999/2009, 171쪽).

(미디어는) 사회적 질서의 조직 속에 깊이 스며들어, 현실에 이르는 길과 현실을 가로막는 장벽을 동시에 제공한다. 매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는 가정 법적 세계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재확인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행위를 알리고 지지하는 경험의 구성은 지속적인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느끼는 것의 진실성과 타당성은 계속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언제나 왜곡이 있고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들, 우리를 오도하는 것들이 있다. 개인으로서, 또 사회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를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미디어가 우리의 습관화된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기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Silverstone, 1999/2009, 171 ~ 172쪽)

사회생활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미디어의 능력은 신뢰, 기억, 타자성 (otherness)이다. 이는 “사회적 기획의 중심을 차지하며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모든 면에서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변화시킨다”(172쪽).

1) 신뢰

오늘날 신뢰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 등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실버스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미디어와 관련해서 조망되는 신뢰의 문제다.

복잡한 세상에서 (...) 행동하고, 서로 사귀고, 공유하고 협력하고 소속되기 위해 신뢰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나가는가? 그런 과정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미디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신뢰를 만들고 견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 줄 것인가?
(Silverstone, 1999/2009, 175쪽)

실버스톤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세계에서는 신뢰 역시 미디어에 의해 훼손된다고 본다. 그러나 미디어는 신뢰의 회복 역시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실버스톤이 강조하는 것은 신뢰의 훼손이나 회복의 문제보다는 미디어의 중심성이다. 미디어는 어떤 행위와 상호작용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재현하고 확인해 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175쪽).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신뢰를 발생시키는 미디어의 능력이 양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관여하게끔 권장하는 동시에 부정하도록 조장한다. 우리는 세상의 각종 위험과 도전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미디어를 신뢰하며, 동시에 그 위험과 도전에 관여하도록 권장하는 미디어를 신뢰한다.

(Silverstone, 1999/2009, 179쪽)

미디어는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상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하게끔 하는 동시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맹목적인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 이중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실버스톤의 표현에 따라

면, 미디어는 “과거에 미신과 종교가 지배했던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179쪽). 여기에서 미디어는 우리가 신뢰하는 환경 즉 ‘추상적 체계’로 기능한다. “미디어라는 추상적 체계는 다른 추상적 체계를 신뢰하는 의지를 강화하며, 우리가 다른 이들과 서로 신뢰하는 구조를 제공한다.”(179쪽). 이렇게 신뢰는 “시민들이 일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도덕적 우주(moral universe)를 위한 기본적인 하부구조를 제공”하며 “신뢰는 일상생활의 평범함과 언어 및 경험 양자의 일관성을 통해 성취되고 유지된다.”(177쪽).

결국 실버스톤이 강력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신뢰의 일상소모품화(commodification)이며, 그러한 현상과 경향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주도한다는 것이다. 실버스톤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와 브랜드 소비를 예로 들면서 미디어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 신뢰의 문제를 미디어 연구가 반드시 다룰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떻게 미디어 – 기존의 미디어와 뉴미디어 모두 – 가 신실하고 정직하며 안전하다고 신뢰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미디어가 우리를 신뢰한다고 알게 되는가?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능력의 전제 조건으로 얼마나 미디어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신뢰의 관계들이 붕괴된다면 우리와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점점 더 미디어에 의지해야만 할 것 같은 이때, 미디어에 의해 또 미디어를 통해 초래된 제도화된 신뢰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는 미디어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전자적 환경 내에서 신뢰할 만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들이 생겨나고 보호된다는 것을 보장하려면 이제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인가? (Silverstone, 1999/2009, 183쪽)

2) 기억

실버스톤은 오늘날 우리의 기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중심을 차지하는 미디어의 능력에 대해 주목한다. 미디어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를 통해 과거를 제시하고 재현하며 역사적 권위를 주장하는데, 실버스톤은 이를 기억 구성과 관련한 ‘미디어의 공적 레토릭(rhetoric)’이라 일컬으며 반드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98쪽). 기억과 관련하여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위한 텍스트와 그 맥락을 규정하기 때문”이다(190쪽).⁹⁾ 실버스톤은 무엇보다 미디어가 “다른 자원의 부재 상태에서 과거를 규정하는 권력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189쪽). 그러한 권위와 권력을 통해 사실로서의 과거를 상상하게 하는 형용모순을 미디어는 만들어낸다.

다른 이야기와 다른 이미지 외에는 참조할 대상이 없는 리얼리즘적 해석들. 목적자의 동원, 당시 상황과 우연적 조우(遭遇)의 재구성, 증거의 발견, 진실의 레토릭.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것은 요구요, 주장이다. 기억하기 위한 요구와 주장. 과거를 규정하기 위한 요구와 주장.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거다. 상상하라. (Silverstone, 1999/2009, 189쪽)

“기억의 구성은 경험의 구성과 상호 관련되어 있다. 기억은 작업(work)이다. (...) 기억은 투쟁이다.”(190쪽). 미디어의 기억 또한 다르지 않다. “미디어의 기억은 획득하고 투쟁을 벌이기 위한 것이다. 모든 기억은 부분적이다. 미디어의 레토릭에서 제공되는 것은 과거의 특정한 해석(version)이며 과거를 포함하는 동시에 배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억을 위한 투쟁이 그렇게도 격렬하게 벌어진다”(197쪽).

미디어의 기억을 통해 우리의 과거는 비로소 드러나고, 과거에 대한 미디어의 해석을 통해 대중적인 역사, 대중적인 기억이 점차 위태로워진다.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에 대한 다큐멘터리적 설명, 텔레비전 드라마로 각색된 소설, 이웃의 삶에 대한 드라마적 재현은 우리로 하여금 “기분 전환

9) 여기에서 실버스톤이 예로 드는 것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이다.

으로서 과거 시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것들은 상상을 제한할 뿐 아니라 가능하게 해 준다. 발가벗길 뿐 아니라 위엄을 부여한다.”(197~198쪽). 실버스톤이 진정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제기했던 역사의 부재라기보다 너무 많은 역사, 역사라고 할 수 없는 역사가 미디어를 통해 도처에 넘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문제, 도덕과 윤리의 문제인 것이다.

3) 타자 그리고 적정한 거리

나와 타자의 관계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와 타자는 세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 “내가 혼자 아니라는 것, 어떻게든 타자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199쪽). 실버스톤은 나의 경험 안에는 타자들이 들어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진 삶은 비록 그 부정기적인 또는 만성적인 비도덕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삶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0쪽).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할 때라야 비로소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간단한 대답은 내가 도덕적 존재가 되어,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또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200쪽)

“미디어가 만들어내고 가까움으로 변장시키는 거리, 미디어가 만들어내고 우리를 떨어져 있도록 유지하는 연결”은 우리로 하여금 타자를 잘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방해한다(206쪽). 여기서 ‘거리(distance)’는 매우 중요하다. 실버스톤의 여러 저작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

리와 장소(location) 개념인데,¹⁰⁾ 이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와 장소를 의미하며 그 현상학적 의미에서 생겨나는 윤리적 문제에 초점이 두어진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130쪽). 실버스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매개된 관계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신과 타자 간의 거리, 나의 가정과 타자의 가정 간의 ‘적정한 거리(proper distance)’로써 규정하려 했던 것이다.

다시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가 보자. 일상과 일상에서의 미디어 소비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장소이자 의미가 수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끝없이 순환하는 매개의 과정은 우리에게 윤리적 판단을 요구한다(Silverstone, 1999/2009, 22쪽). 가정이라는 개념은 거리의 윤리(ethics of distance)를 요구하며 이는 타자에 대한 환영, 환대(hospitality)의 양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Bassett, 2007, p. 47).

우리가 타자에 대해 보살핌의 의무, 관여와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하려면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실버스톤의 미디어 연구가 도덕적, 윤리적 지향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실버스톤은 아렌트의 관점에 기대어, 대화의 참여자 간에 거리와 연결이 있어야 서로 이해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고, 바로 미디어가 그 거리와 연결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제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사람 사이에 연결 뿐 아니라 동시에 분리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설은 미디어가 거리를 소멸시킨다는 요즘의 믿음에 의심을 갖게 만들며, 사사회화뿐 아니라 고립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다. 개인과 집단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다. 실버스톤이 보기에, 연결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겉으로 함께 연

10) 실버스톤은 *Television and Everyday Life*에서도 공간의 문제에 천착했고, 이를巴塞트는 ‘(미디어) 공간의 시학(poetics of spaces)’이라고 일컫는다(2007, p. 43). 추정컨대, 이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했던 그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결해 주는 듯 보이는 매개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Silverstone, 2004, p. 444).

다시 말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에서 미디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가 수행하는 매개의 특정 양식을 통해 관계가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assett, 2007, p. 44). 사실 미디어는 언제나 ‘적정한 거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러)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리의 양극화, 그리고 혼란이다.¹¹⁾

(…) 미디어는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사이의 협상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는 거리를 규정함에 있어 양극화를 만들어냈다. 낯선 것은 인간성 너머로 밀어내지거나 아니면 너무 밀접해서 우리 자신과 구분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Silverstone, 2004, p. 445)

실버스톤은 우리가 다른 이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의 대상물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이해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렇기에 ‘적정한 거리’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실버스톤은 ‘적정한 거리’라는 개념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를 측정하고 수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Silverstone, 2003). 미디어가 빚어내는 거리의 양극화가 변증법적으로 접합되어 적정한 거리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리 두기와 밀접함의 변증법, 친숙함과 낯섬의 변증법은 후기 근대사회의

11)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거리의 혼란에 대해서는 콜드리와 마크함(Couldry & Markham, 2008)을 참조할 것.

중요한 접합이며, 그 변증법 안에서 미디어가 결정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 이것이 미디어의 가장 뛰어난(par excellence)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221쪽)

나아가 ‘적정한 거리’ 개념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융합과 관련하여 고려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진정한 시민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경계면에서 타인에 관여하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도덕적 어젠다와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도덕적 어젠다는 매개의 세계와 매개된 세계의 결과물 양자의 조건에 적용되는 것이다(Silverstone, 2004, p. 445).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거리에서 작동하(고자 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윤리적으로 작동하는 미디어 시스템이다. 미디어 제작자 뿐 아니라 사용자, 소비자 역시 이에 관여해야 윤리적인 미디어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Bassett, 2007, p. 46).

5. 도덕과 윤리를 위한 미디어 연구

1) 새로운 미디어 정치학과 미디어폴리스

실버스톤이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의 마지막 장에서 제시했던 ‘새로운 미디어 정치학’은 바로 도덕적, 윤리적 미디어에 대한 그의 사유를 잘 보여준다.¹²⁾ 옹(J. Ong)은 이러한 실버스톤의 천착이 미디어 연구의

12) 이러한 그의 학문적 지향은 유적이 되어버린 *Media and Morality: On the Rise of Mediapolis*(2007)에서 더욱 명징하게 드러난다. 스티븐슨(Stevenson, 2007)은 이 책을 근래 미디어 연구와 문화연구 분야에서 가장 독창적인 저작으로 평가하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가로질러 필독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 533).

도덕적, 윤리적 전환을 이룬 계기가 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2009, p. 449). 실버스톤의 도덕철학은 레비나스(Levinas), 벌린(Berlin), 아렌트(Arendt)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들에 관계하며 따라서 책임을 지는 존재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 다양성(plurality)이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Lacey, 2007, p. 67).¹³⁾ 우리는 공통으로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필요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 즉 우리의 다양성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 즉 매개는 ‘도덕적 삶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분리될 수 없다(Silverstone, 1999/2009).

진정, 미디어 연구는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현의 뿌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과 미디어가 물질적, 상징적 타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우리와 미디어 간의 관계, 또 각각의 관계가 어떻게 풀려가고 평가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도덕적 삶을 위한 투쟁의 근원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미디어 연구는 우리가 인간의 조건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211쪽)

여기서 실버스톤은 “미디어가 아니고는 멀리 떨어져 있을 타자들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 관여”를 미디어가 요구하는 방식, 그 영향과 함축에 대해 방향을 맞추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것을 주장한다. 결국은

13) 실버스톤은 생전에 ‘워커홀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가는 학교마다 학과와 연구 센터를 만들고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깊은 정성을 쏟았다. 레이스는 실버스톤이 단순히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애썼던 다양한 노력을, 바로 그의 이러한 학문적 지향이 체화된 것으로 이해한다(Lacey, 2007, p. 67).

이 모든 것이 권력에 대한 것이며, 우리는 미디어의 권력을 염려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213쪽).

우리는 미디어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미디어의 권력을 비난하며, 미디어의 권력을 숭배한다. 규정하는 권력, 선동하는 권력, 계몽하는 권력, 유혹하는 권력, 평가하는 권력. 우리는 미디어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구조화하는 데에, 표면적으로 또 깊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연구한다. 우리는 미디어의 권력이 나쁘게 보다 좋게 이용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213~214쪽)

우리는 서로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배워야 하며 미디어가 거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의 (희망 어린) 주장은 기본적으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요구의 핵심에 미디어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버스톤은 ‘새로운 미디어 정치학’이라는 용어를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미디어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정치학 문제와 뉴미디어의 세계를 위한 정치학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다. “한때 미디어를 정치 과정의 부속물 - 정부와 정당을 위한 보조자, 성가신 존재 또는 감시견, 제4부 - 로 생각했던 반면, 이제 우리는 미디어를 정치 과정 그 자체 속에 근본적으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서 마주해야 한다. 정치는, 경험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미디어 프레임 바깥에서 생각할 수조차 없다”(214쪽).

실버스톤은 “이제 미디어를 중심에 놓지 않고서 세계화와 성찰성, 위험의 관리를 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도(215쪽), 세계 사회(global society)의 현재 상황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했던 벡(Beck)이나 기든스(Giddens), 그레이(Gray), 소로스(Soros) 등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디어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버스톤이 요구하는 것은

학계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미디어를 연구하는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 사회의 특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인 성찰성의 담지자이며 그 전제조건이 바로 미디어이기 때문이다(215쪽).¹⁴⁾ “정치를 이해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권력의 행사를 이해함에 있어 미디어가 무엇을 함축하는지 생각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215~216쪽).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미디어 공간은 다국적 미디어기업의 판매 전략의 효과라기보다는 무질서의 공간, 다층적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세계화된 미디어가 전하는 이미지와 소리, 재현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세계 곳곳의 낯선 이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인간적 나약함, 전쟁, 고통이 담긴 이야기를 듣는다(Stevenson, 2007, p. 531).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코스모폴리탄적 윤리의식¹⁵⁾을 제기하는데, 민족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정의, 책임감, 도덕성, 타자성에 대한 존중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공론권(public sphere) 개념은 그러한 문제들을 포착하거나 논의하는 데에 한계를 가진다(Stevenson, 2007, p. 531).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공론권은 이제 ‘미디어폴리스(mediapolis)’로 진화해야 한다.

유작이 되어 버린 *Media and Morality: On the Rise of Media polis*(2007)에서 실버스톤이 제안하는 ‘미디어폴리스’ 개념은 하버마스(Habermas)의 ‘공론권’과 포퍼(Popper)의 ‘열린 사회(open society)’ 등에 기대고 있다. ‘미디어폴리스’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타자에

14) 실버스톤은 조지 소로스(Soros, 1998)를 인용하여 성찰성을 “사고와 현실 간의 쌍방향적 상호작용으로서 후기 근대사회에서 삶의 복잡한 동학(動學)을 감시하고 이해하지만 통제하지는 않는 능력”으로 규정한다(1999/2009, 215쪽).

15) 출리아라키(Chouliaraki)는 이를 ‘타인과 관계하려는 지향, 의지’로 규정한다(2008, p. 387).

대해 배우며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매개된 공간으로서 일상적인 것, 지역적인 것, 국가적인 것이 다함께 도덕경제로서 합쳐져 구성되는 역사적 지평으로 규정된다(Silverstone, 2007, p. 47). 그 안에는 (당연히)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환경적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의 경험 중 방대한 대부분이 테크놀로지를 통해 매개된다. 실버스톤은 경험의 새로운 지평 안에서 매개의 책임성에 대해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스티븐슨(2007)의 언급을 보자.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정치문화는 매클루언적 의미의 기술적 변환이 아닌 우리가 공유하는 도덕적, 지적 능력에 달려 있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확장하는 미디어의 능력은 우리의 시민적 상상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한다.

(Stevenson, 2007, p. 531)

2)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폴리스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미디어 정치학 또는 뉴미디어 정치학은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전제한다. 미디어의 레토릭을 악으로 규정하는 실버스톤은 레토릭이 다양한 인간성과 공통적 인간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려는 방식을 무엇보다 염려한다. 근래 미국 대중문화와 종교적 근본주의에 의해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복합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파괴되었고, 선악을 나누는 단순한 구분법이 힘을 얻게 되었다(Stevenson, 2007, p. 531). 마치 미디어가 전달하는 이야기에 멍하게 취해 있거나 탐욕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우리를 질타하는 양, 실버스톤은 우리의 주목을 끌고 신뢰를 얻기 위해 갖가지 기법으로 무장한 미디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 텍스트가 채택하고 있는 레토릭, 포에틱(poetic), 에로틱(erotic)이라는 세 가지

주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각각의 핵심 기법인 설득하기(persuade), 즐겁게 하기(please), 유혹하기(seduce) 등에서 미디어의 특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ilverstone, 1999/2009, 46쪽).

미디어의 텍스트를 레토릭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럴듯하고(plausibly) 듣기 좋게(pleasingly) 설득적으로(persuasively) 배열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즉 텍스트적 전략을 해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미디어의 텍스트를 레토릭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수용자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텍스트 안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이 자리하는지를 찾아내고, 평범한 말이 어떻게 상식과 관련되는지를 이해하며, 어떻게 새로움(novelty)이 익숙한 근거 위에 구축되는지, 속임수가 어떻게 변하고 상투어가 어떻게 취향과 스타일의 변화 속에 동원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Silverstone, 1999/2009, 58쪽)

즉 “미디어와 경험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의도와 호소, 흥미와 응답, 텍스트와 행위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간여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62쪽). 실버스톤은 뉴미디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획(project)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안한다.¹⁶⁾

우리 모두는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획이다. 미디어를 연구하는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대한 전자 미디어의 편재성과 중심성을 생각한다면, 우

16) 만셀(Mansell, 2002)은 실버스톤의 문제 제기에 동조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격차 문제를 위한 뉴미디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일상적 기획(everyday project)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셈이다. (Silverstone, 1999/2009, 229쪽)

6. 나가며

실버스톤은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정보사회에서 가정과 일상, 즉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것의 정치적 의미와 중요성을 일찍이 간과하고 일상적 경험의 커뮤니케이션적 윤리, 일상적 경험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간의 상호연관성에 천착했다. 그가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를 통해 시도했던 것은 밖으로는 미디어 연구의 중요성을, 안으로는 미디어 연구의 전환과 확장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실버스톤의 사유와 논의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대 사회의 이해와 진단에 있어 그 중심에 다른 아닌 미디어를 두었다는 것이며, 미디어에 대한 회의적 시선과 통렬한 비판이 미디어나 테크놀로지의 부정이나 정치적 허무주의로 이어지지 않고 인간과 사회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미디어와 미디어 연구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실버스톤이 생각하는 근본적 동력은 무엇보다 미디어와 미디어 연구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 연구 스스로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깨닫고 방향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미디어가 속속들이 스며있는 환경적 조건에서 인간 본연의 도덕적 삶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실버스톤의 논의는 결국 미디어 연구라는 학문과 미디어를 연구하는 자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책무에 대한 강력한 환기라고 할 수 있다.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에서 펼쳐지는 실버스톤의 논의와 주장은 오늘날 미디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득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미디어 연구의 요체는 인간성의 회복과 타자에 대한 신뢰의 복원으로서 도덕적이며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의 줄기를 거칠게 요약해 보면, 현대 사회 인간 경험의 세 차원은 놀이, 연기, 소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가정, 공동체, 세계라는 장소에서 레토릭, 포에틱, 에로틱이라는 미디어의 텍스트 전략을 통해 의미로 구성되고, 미디어의 이러한 의미 형성 능력은 크게 신뢰, 기억, 타자성이라는 세 차원에서 중요하게 행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미디어의 매개 속에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미디어 정치학이며, 그를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 책임감을 가진 세계시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론권’과 ‘열린 사회’를 넘어서는 ‘미디어폴리스’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 구체적 기획의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버스톤의 논의가 지나치게 규범적이거나 이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다. 갈수록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넘쳐나는 ‘무도덕적’ 콘텐츠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진정 얼마나 효과적인 실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미디어 리터러시로 ‘무장’한 세계시민으로의 거듭남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세계시민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버스톤의 정확한 관찰처럼, 그렇게 강력한 미디어, 신자유주의적 경제 제도와 맞물려 돌아가는 미디어 산업의 거대한 운동성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늦추는 정도라도 할 수 있는가? 더구나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경험과 관계의 매개 속에서 이상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타당한 것인가?

그러나 그의 이상주의가 공허한 담론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날 자본주의와 세계화가 추동하는 문제적 현실에서 곳곳에 포진한 미디어의 활약을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간파해냈으며 문제 해결 역시 문제의 진원지요 매개자, 증폭자인 미디어를 통해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폴리스라는 이상 사회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실천적 전략의 제시를 통해 그 규범적 모호함과 불투명함을 벗어버린다. 당장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좌표와 의지를 잃어버린 세계화 시대의 미디어 놀이자(player)/연기자(performer)/소비자(consumer)들에게 뚜렷한 지향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표와 방향 감각을 찾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할 점은 실버스톤의 논의가 한국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명 그의 관찰과 논의는 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설명과 주장에 동원되는 사례 대부분이 이미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들임을 인정한다면,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일상을 이해하는 데 실버스톤의 제한적 관찰이 심각한 제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최근 한국의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미디어법과 포털 규제 등 미디어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논란과 혼돈 양상, 그 속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 등은 오히려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서구의 경험과 별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었다. 실버스톤의 주장이 당위성을 갖는 지평에 한국 사회와 미디어가 포함되는 측면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에 의해 왜곡되고 파괴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디어 연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결국 그 누구보다 미디어를

연구하는 이들에 대한 간절한 호소로 읽혀진다. 그 호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미디어 연구자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파편적 미디어 연구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실버스톤의 이러한 희망이 진정 미디어와 미디어 연구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실현가능성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 그저 '가망 없는 선언'에 불과하게 될지(Hargreaves, 2000, p. 48), 그 선택은 바로 미디어를 연구하는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 진정, 우리는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내놓고 함께 고민해 보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Bassett, C. (2007). Of distance and closeness: The work of Roger Silverstone. *New Media & Society*, 9(1), 42~48.
- Chouliaraki, L. (2008). The mediation of suffering and the vision of a cosmopolitan public. *Television & New Media*, 9(5), 371~391.
- Clark, L. S. (2007). Book review: Roger Silverstone, media and morality: On the rise of the mediapolis. *New Media & Society*, 10(3), 537~544.
- Couldry, N. (2008). Mediatization or mediation? Alternative understandings of the emergent space of digital storytelling. *New Media & Society*, 10(3), 373~391.
- Couldry, N., & Markham, T. (2008). Troubled closeness or satisfied distance? Researching media consumption and public orientation. *Media, Culture & Society*, 30(1), 5~21.
- Hargreaves, I. (2000. 9. 11). How media studies could save our scientists from a bomb. *New Statesman*, 48.
- Lacey, K. (2007). Home, work and everyday life: Roger Silverstone at sussex.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 61~69.
- Livingstone, S. (2007). On the material and the symbolic: Silverstone's double articulation of research traditions in new media studies. *New Media & Society*, 9(1), 16~23.
- Mansell, R. (2002). From digital divides to digital entitlements in knowledge societies. *Current Sociology*, 50(3), 407~426.
- Ong, J. C. (2009). The cosmopolitan continuum: Locating cosmopolitanism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Media, Culture & Society*, 31(3), 449~466.
- Silverstone, R. (1994).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London: Sage.
- Silverstone, R. (1995). *Television and everyday life: Professorial lecture*. University of Sussex, May 1995.
- Silverstone, R. (1999/2009). *Why study the media?* London: Sage. 김세은

(역).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ilverstone, R. (2003). Proper distance: Towards an ethics for cyberspace. In Liestol, G., Morrison, A., & T. Rasmussen (eds.). *Digital media revisited: Theoretical and conceptual innovations in digital domains* (pp. 469~490). Cambridge, MA: MIT Press.
- Silverstone, R. (2004). Regulation, media literacy and media civics. *Media, Culture & Society*, 26(3), 440~449.
- Silverstone, R. (2007). *Media and morality: On the rise of mediapolis*. London: Sage.
- Stevenson, N. (2007). Review article: Roger Silverstone (1945~2006): An intellectual appreci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0(4), 529~533.

abstract

Media Studies for Humanity and the Ethics of Everyday Life:

**An Introductory Appreciation of *Why Study the Media?*
by Roger Silverstone**

Sae-Eun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angwon Nat'l University

Why do we study the media? Why media studies at this stage? This paper starts from the reflection of our insensibility and easygoing way of intellectual life without thinking the true reason of doing media studies. Roger Silverstone points out the paradox around the media and media studies; no one denies the centrality of the media in our everyday life, however, they hardly admit the importance of media studies. Silverstone's critical question provokes the debates not only on th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position of the media but also of media studies. His argument gives a clear orientation for media studies for humanity and morality. Silverstone sees the media as environment, general texture of experience, and, therefore argues that the media should provide a proper distance to think our reciproc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We, users or consumers in this globalized post/modern world, according to him, need to regard ourselves as players and performers as well, paying a special attention to the media's signifying strategies such as rhetorics, poetics and erotics, media literacy in other words. In so doing, we may understand, engage and

trust the Other and make a further step towards the mediapolis.

key words: media, media studies, experience, mediation, technology, home, everyday life, trust, the other, proper distance, morality, ethics, globalization, mediapolis, media literacy